

경영학도의 길을 걷던 최민호 동문은 살기 위해 경찰관이 됐다. 회기에 대한 좋은 추억으로 정년을 회기파출소에서 보내게 된 최 동문을 만나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다.



제17대 총장 선출을 앞두고 우리신문은 구성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2023년 10월 10일 화요일

대학주보



평화 혹은 붕괴
변곡점에 선 지구사회

제42회 UN 세계 평화의 날 기념 '2023 Peace Bar Festival(PBF)'이 <평화 혹은 붕괴, 변곡점에 선 지구사회>를 주제로 지난달 21일,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에서 열렸다. 세계 각국 인사가 모인 라운드테이블 이외에도 경희 평화운동 사진전, 지구시민버스 등 다양한 행사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관련기사 5면)

공예진 기자 yejin514@khu.ac.kr

차예은<태권도> 아시아 최정상에

배연우 기자 yeonwoo.bae22@khu.ac.kr

차예은(태권도학 2020) 선수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태권도 품새 개인전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 금메달로 차 선수는 한국 여자 태권도 선수 중 최초로 그랜드슬램(세계선수권, 아시아 선수권, 세계대학경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달성했다.

차 선수는 8강에서 베트남 응우옌 티 킴 하 선수를 0.010의 아슬아슬한 점수 차로 꺾고 4강에 진출했다. 이어진 4강에선 차 선수의 주 종목인 자유 품새를 활용해 대만의 천신야 선수에 승리해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는 일본의 니와 유이코 선수를 가볍게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고등학교 시절 입은 부상 탓에 격파에서 품새로 종목을 변경했지만,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은 차 선수는 품새 종목에서 아시아 정상에 서게 됐다.

차 선수는 2022 고양 세계태권도 품새선수권대회 자유 품새 금메달, 2022 춘천 아시안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금메달, 2023 청두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품새 금메달에 이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태권도 품새 금메달을 획득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차 선수는 "큰 성과를 거둔 것 같아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부상에 이어 종목 변경이라는 고난이 있었지만, 단기간에 그랜드슬램을 달성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금메달을 딸수록 부담감이 커지고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지만 그 기대에 보답했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있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고 더 나아가 지도자나 교수로 진로를 정해 태권도 후학 양성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가을 대동제 2억 6천...가수 섭외는 1억 5천

박서현 기자 parkseohyun@khu.ac.kr

【국제】국제캠퍼스(국제캠) 가을 대동제에 약 2억 6천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됐던 연예인 섭외비는 1억 5천 9백만 원 가량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유명 연예인 '씨'가 섭외 요청을 뒤늦게 수락하며 기존에 편성했던 섭외 예산보다 액수가 늘어났다. 무대, 조명, 중계, 홍보물 등 연예인 섭외비 이외에 편성됐던 예산을 줄여 연예인 섭외 예산을 보충했고 이는 축제 진행 대행업체의 협조를 통해 이뤄질 수 있었다.

지난 8월 학생지원센터는 예산 총액 269,830,000원으로 대동제 대행업체 입찰을 공고했다. 학생지원센터가 우리신문에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대행업체의 최종 집행액은 268,508,856원이다. ▲연예인 찬조공연(섭외) 159,000,000원 ▲무대, 조명, 음향, 중계 52,500,000원 ▲컨텐츠(놀이기구, 불꽃놀이, 홍보물 등) 29,344,000원 ▲안전관

리 및 행사진행(경호원, 보험 등) 27,664,856원 순이다.

2억 7천만 원이라는 총액은 봄 대동제 예산이 이월됐기에 가능했다. 학생지원센터는 2023학년도 봄·가을 대동제 예산이 2억 7천만 원으로 예정돼 있었으며 이중 봄 대동제에 1억 5천2백만 원을 할당했었다고 밝혔다.

축제 예산 총액 2억 7천만 원은 지난달 11일, 축제 진행을 위한 대행업체 입찰 공고에서 공개됐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축제 찬조 공연 연예인이 모두 공개된 뒤, 총학생회(총학)를 비판하는 여론이 일었다. 입찰 공고로 밝혀진 예산액에 비해 섭외 연예인의 지명도가 낮다는 것이다. 총학 SNS 게시물에는 "이 연예인들을 섭외하는데 2.7억을 쓰는 것도 능력이다", "돈을 어디에다가 쓴 거냐"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학내 구성원 약 130명은 180만 원을 모금해 축제 기간 3일 동안 트럭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동제 예산은 총학이 기획안을

작성해 학생지원센터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집행한다. 다만 기획안은 씨의 섭외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학생지원센터에 제출됐다. 씨의 섭외는 뒤늦게 이뤄졌고 원래 할당됐던 연예인 섭외비가 최종적으로 1억 5천9백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국제캠 총학 권예성(건축공학 2018) 부회장은 "축제 준비가 마무리돼 섭외 연예인이 모두 확정됐을 쯤 씨가 축제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소식을 듣자마자 대행업체를 통해 섭외 의사를 밝혔고, 섭외가 가능하다는 확인은 축제 1일 차인 19일에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에 확정된 연예인 공연을 취소하고 씨 공연으로 대체하고 싶었지만 위약금 문제로 쉽지 않았다"며 "축제 진행 대행업체의 무대 예산 조정으로 연예인 섭외 예산이 기존보다 늘어나 씨를 추가로 섭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씨가 축제 기간에 공연한다

는 소식이 비공식 경로로 먼저 발표된 것도 공분을 샀다. 총학 공식 SNS가 아닌 3일차 공연을 주관하는 중앙동아리운영위원회 소속부원을 통해 공개된 것이다. 섭외 부실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씨를 뒤늦게 섭외한 게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려 비판 여론에 불이 붙었다. 하지만 국제캠 총학 문정식(중국어학 2018) 회장은 "씨는 가고 싶은 축제를 즉흥적으로 가는 연예인이라고 들었다"며 "더 일찍 공개하고 싶었지만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야 공개할 수 있어서 힘든 아티스트로 공개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우리신문은 항목별 집행액에 더해 보다 정확한 내역을 살피기 위해 예산사용 증빙서류 열람을 학교측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학생지원센터 김성희 계장은 "예산사용 관련 기안과 세부 건적 내용 등은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